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운영

서민들 주거안정 위한 혁신 프로젝트 본격화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주시는 서민 주거복지 등 전주형 주거복지 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IH), 전북주거복지센터 등 주택 관련 민·관·공 22개 기관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체인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각 기관별 자원을 연계해 통합 주거지원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면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전주형 주거복지 혁신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시는 민·관 주택 공급주택 간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담 및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정보를 공유, 시민들에게 보다 확대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을 위한 서민들의 의견문제 파악과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정책개발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7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서기식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감미현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장 등 22개 단



“하루, 합법 파업 들어갑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은행 지점에 합법 파업으로 인해 정상 업무가 어려움에 일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전주시주거복지네트워크 협력 협약식과 함께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약속하는 한편, 향후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계획과 운영방식 등을 조율하게 된다

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사업들에 대한 정보와 자원 공유가 이뤄지면, 전주형 주거복지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농기센터, 농촌진흥사업 관련 조례 3건 제정 정비

농촌지도·교육훈련 지원·새기술 시범사업 등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명시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제도정비에 나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는 전주시지역 농업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육성과 원활한 농가지원에 위해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진흥조례 등 관련 조례 3건을 제정 또는 정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전주시 농업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주시지역 농가는 7982가구, 농업인수는 2만8845명에 달한다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진흥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 지원사업 △새기술 시범사업 △농산물가공 및 미생물배양실 운영 △농자재(종자·상토·유기질비료·미생물 등) 지원사업 △6차산업 △현장공동체농업 연구사업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농업 연수 등의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게 된다

제정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농촌지도사업을 농업인들과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별관 165㎡를 리모델링해 미생물 자체배양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고 시험배양을 거쳐 본격적인 생산 체계에 도입함에 따라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중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사용자 책임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조만간 각 조례(안)을 최종 확정 후, 농업인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5, 2016년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wanju wildfood Festival

2016. 9. 23(금) ~ 9. 25(일)

전북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와일드푸드란?

로컬푸드1번지 건강한 먹거리를 말합니다. 향수음식, 야생음식, 이색음식 모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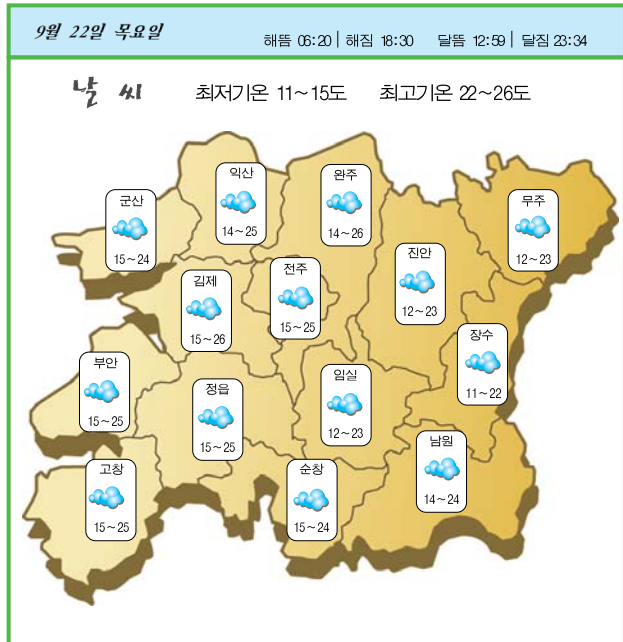
향수음식 | 어릴적 향수를 자극하는 **고향음식**

야생음식 | 조리나 양념없이 자연에서 채취해 바로 먹는 **100% 야생음식**

이색음식 | 장작불로 구워먹는 황토닭 진흙구이, 가재구이 등 평소 맛보기 힘든 **독특한 이색음식**

완주와일드푸드축제는

와일드한 옛 추억과 음식이 함께 어우러진 건강하고 맛있는 축제입니다. 청정완주의 자연생태가 지닌 야생성을 온 몸으로 느끼고 로컬푸드1번지 건강한 먹거리를 맛 볼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 추억의 놀이터 체험시설 추가 조성

전통 정자 2개소·그네·형틀·옥사 등

전주한옥마을에 조성된 추억의 놀이터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추억의 놀이터에는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들이 따가운 햇살을 피해 쉬어갈 수 있는 전통 정자와 그네 등 체험시설이 추가 조성되면서 한옥마을을 찾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쉬어가는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한옥마을 내 원불교 교통교당 옆 추억의 놀이터(교동 79-52 번지, 446.2㎡)에 전통 정자 2개소와 그네, 형틀, 옥사 등의 체험시설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태조로 주변 골목에 위치한 추억의 놀이터는 지난해 9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조성됐다

추억의 놀이터에는 윗놀이장과 씨름장, 벤치 등이 설치돼 그간 젊은이들이 즐겨 찾았다

하지만 햇볕을 피해 쉴 수 있는 공간과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추억의 놀이터에 전통정자를 설치해 고단한 관광객에게 한옥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춰 체험하며 추억을 남기는 놀이터 본연의 기능을 보강했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추억의 놀이터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편의시설과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면서 "추억의 놀이터가 한옥마을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학교급식 만족도 87.6점으로 상승

전라북도내 학교급식 만족도 점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생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21일 교육부의 2015년도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에서 전북은 87.6점을 기록해 2014년보다 1.2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대상으로 음식의 맛과 식사, 배식 등 13개 품질 속성을 중심으로 만족도를 점수화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만족도 조사 세부 결